

【기획논문】

1980-90년대 부산 신발산업의 해체와 재생

장 지 용*

목 차

- I. 서 론
- II. 한국 신발산업의 해체 : 현상과 원인
- III. 부산 신발산업의 해체와 재생
- IV. 결 론
- 부 표

〈국문초록〉

본 논문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신발산업의 해체기(1980년대)를 고찰하였다. 1980년대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신발산업은 급격히 쇠퇴하였다. 산업적 기반이 해체될 정도의 쇠퇴는 그 성장과정에서 배태된 문제가 한꺼번에 현실화한 결과이다. 저임금에 기반 한 산업이었고, 독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시장에 진출한 것이 아니라 국제하청체계에 기인한 성장이었다.

신발산업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지역 신발산업은 독자브랜드의 개발과 수출, 자동화를 포함한 기술혁신, 기업규모의 축소와 전문화, 재입지 및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 다양한 노력을 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은 그다지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해체의 과정에서 특수한 분야에 전문화된 기업이 등장하면서 틈새시장을 확보하기 시작한 것은 새로운 출발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부산 신발산업이 이전과 같은 영광

*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을 재현하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과거의 영광은 진정한 의미의 영광이 아니었다. 부산의 신발산업이 진정한 의미의 영광을 누리기 위한 출발은 1980년대 후반 신발산업의 붕괴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 핵심주제어 : 부산, 신발산업, 수출, 종사자, 경영지표분석

I. 서론

부산을 대표하는 산업이었던 신발산업은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의 하나였고, 한국 공업화의 성공을 상징하는 산업 중에 하나였다. 1991년 우리나라는 이탈리아에 이어 제2위의 신발 수출국이었고, 세계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0%에 이르고 있었다. 단일산업, 그리고 단일품목으로서 이 정도의 비중을 가진 산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수출산업이었다.

특히, 부산은 1991년 완제품 생산을 기준으로 하면 전국 신발 업체수의 65.1%, 생산라인의 76.8%, 종업원의 82.8%, 매출액의 88.4%를 차지하고 있었다. 업체수에 비해 생산라인의 비중이 더 높고, 생산라인 보다 종업원의 비중이, 그리고 종업원의 비중보다는 매출액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은 부산의 신발산업이 전국의 그것에 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었고, 생산의 효율이 높았고, 고가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즉 이 시기 부산의 신발산업이 곧 한국의 신발산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대표적인 수출산업이었던 신발산업은 1980년대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쇠퇴하였다. 국제상사의 해체와 삼화그룹과 화승그룹의 폐업, 동일화성, 대양고무, 진양고무, 정보산업의 부도 등으로 대표적인 신발업체가 도산하였다.

이는 부산지역 신발산업, 나아가 한국의 신발산업의 붕괴, 혹은 해

체라고 할 만큼 급격하고 대규모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신발산업의 급격한 쇠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지적된다. 급격한 환율의 평가절상, 1987년 이후 진행된 임금의 상승, 원자재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한 수출채산성의 악화가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된다.

본 연구는 1980년대를 중심으로 부산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신발산업의 쇠퇴과정과 이후 새로운 시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시기적으로는 1980년대를 중심으로 하며, 필요한 부분은 1990년대 초반까지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신발산업이 그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고유한 구조적 한계를 만들어 가고 있었음을 밝힌 선행연구¹⁾의 연장선상에서 쇠퇴의 마지막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즉 신발산업 성장의 주요한 동력이었던 수출이 급격하게 쇠퇴하게 된 원인을 밝히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새로운 시도들이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한국 신발산업의 해체 : 현상과 원인

<그림 1>은 한국무역협회가 추계한 SITC에 의한 무역통계를 기준으로 신발 수출의 추이를 보인 것이다. 그림에서 보면 1989년 수출액이 1988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1990년에 다시 증가하여 4,307,058백만 원으로 정점을 형성하고 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4년의 4.62%를 저점으로 증가하여 1990년에는 6.63%로 정점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신발 수출이 적어도 1980년대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쇠퇴는 1990년을 기점으로 쇠퇴하였다는 논의는 이를 근거로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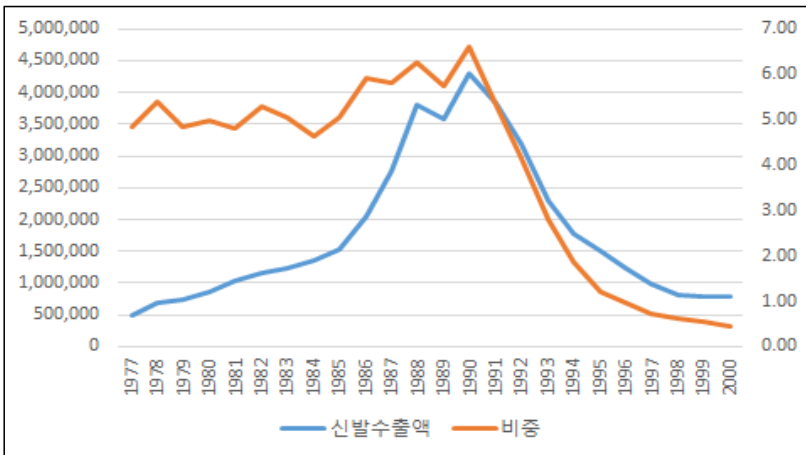
수출수량을 기준으로 하여도 기본적인 경향은 비슷하다. <표 1>은

1) 이에 대해서는 장지용, 「1960·70년대 부산 신발산업의 성장과정 연구」, 『항도부산』 31, 2015. 참조

우리나라 신발 총생산량과 수출 및 내수량을 보인 것이다.²⁾ 총생산은 1988년에 573백만 켤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고, 수출 역시 1988년 451만켤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즉 1988년까지는 수출량의 증가를 동반한 수출의 증가가 나타났다. 1988년부터 1989년의 수출액의 감소는 급격한 수출량의 감소가 이유이다. 1989년의 수출량은 불과 396백만 켤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수출수량의 감소는 1987년 미국과 캐나다의 수입규제, 그리고 EC의 한국산 신발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림 1〉 우리나라 신발 수출의 추이

(단위: 천달러, %)



자료 : 한국무역협회, SITC에 의한 무역통계(<http://kosis.kr>)

주 : 1) 1991년 이전 자료는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통계통합품목분류(HS/K)체계로 연계되지 않은 자료임. 2) 계상시점은 통관면허일자 기준이고, FOB 가격 기준임.

2) 앞선 시기, 즉 1970년대를 보면 1978년에 238,240천 켤레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완만한 상승의 추세를 보이고 있고, 198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신발수출량에 대해서는 장지용, 「앞의 논문」, 2015, 11~12쪽과 37~40쪽의 <부표2>, <부표3>, <부표4>를 참조할 수 있다.

그런데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수출액의 증가율이 수출량의 증가율보다 대체로 높다. 수출액의 증가율이 수출량의 증가율보다 높은 현상은 1972년과 1983년을 제외하면 1970년 이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저가의 고무신 등의 수출품목이 고급화한 것이 주요한 원인의 하나이다.

1986년 신발수출의 평균단가는 6.25달러였던 것에 비해 혁제 운동화는 7.89달러였고, 1988년에는 각각 8.81달러, 11.83달러로 혁제 운동화의 단가가 더 높았다. 1986-88년의 평균 증가율을 구해 보아도 각각 18.7%와 22.5%였다.³⁾ 이는 대만에 비해서는 평균 3달러 정도 낮은 것이지만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에 비해서도 높은 단가이다.

따라서 비교적 고가의 혁제운동화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출량의 증가보다는 수출액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1989년 수출수량의 감소와 수출액의 감소를 비교해 보면 수출량의 감소가 수출액의 감소에 비해 더 컸는데 이 역시 같은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⁴⁾

3) 한국은행 부산지점, 『부산지역 신발산업의 현황』, 1991, 17쪽. 1991년과 1992년 미국으로 수출한 혁제운동화의 평균단가는 각각 15.84달러와 16.29달러에 이르고 있다. 미국시장과 일본시장에서 경쟁국과 한국의 수출단가의 비교 등에 대해서는 임정덕·박재운, 『한국의 신발산업』, 산업연구원, 1993, 188~192쪽. 그리고 미국의 수입단가와 미국 시장에서 일반혁화와 혁제운동화, 그리고 고무화의 수입단가에 대해서는 서재일, 『신발산업의 현황과 구조조정방향』, 1993, 41쪽의 <표 4-4>, 46쪽의 <표 4-8>과 <표 4-9>, 그리고 48쪽의 <표 4-11>. 참조

4) 1988-1991년간 미국시장에서 경쟁국간 수출단가와 변화추이를 보면 한국의 경우는 연평균 11.5%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고급화에 성공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류이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우리보다 수출단가가 2배정도 높은 고급 정장화에 특화해 있었다. 고무화의 수입단가가 1991년 12.33달러인 것에 비해 이탈리아는 18.30달러, 일반혁화의 경우 우리나라는 12.84달러 인 것에 비해 이탈리아는 23.98달러, 그리고 혁제운동화의 경우 우리나라는 15.84달러인 것에 비해 이탈리아는 무려 50달러에 이르고 있다. 서재일, 『앞의 논문』, 41쪽의 <표 4-4>, 46쪽의 <표 4-8>과 <표 4-9>, 그리고 48쪽의 <표 4-11> 참조. 이탈리아의 신발산업에 대해서는 임정덕·박재운, 『앞의 책』, 304~308쪽. 참조

〈표 1〉 신발산업의 총생산량과 수출 내수 비중의 추이

(단위 : 백만족, %)

구분	총생산량	수출		내수	
		수량	비중	수량	비중
1970	70	14.8	21.1	55.2	78.9
1980	298	203	68.1	95	31.9
1982	349	251	71.9	98	28.1
1984	376	272	72.3	104	27.7
1986	467	349	74.7	118	25.3
1988	573	451	78.7	122	21.3
1990	512	386	75.4	126	24.6
1991	460	331	72.0	129	28.0
1992	366	250	68.3	116	31.7

자료 : 한국신발산업협회, 『신발산업현황』, 1992.(임정덕·박재운, 『한국의 신발산업』, 산업연구원, 1993, 54쪽에서 재인용)

1990년은 수출량은 감소한 반면 수출액은 증가하였다. 수출량의 감소를 동반한 수출액의 증가의 원인은 감소하였던 혁제운동화의 수출 비중이 증가한 것, 그리고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환율의 변화이다. 1985년 원/달러 환율이 870원에서 1986년 881.5원으로 평가절하 된 이후 1989년까지 3개년에 걸쳐 평균 8.7%의 높은 절상률을 보이고 있다. 1989년 671.5원을 저점으로 이후 다시 환율이 평가절하 되었다. 환율의 평가절하가 수출수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달러로 계상된 수출액의 증가를 가져온 원인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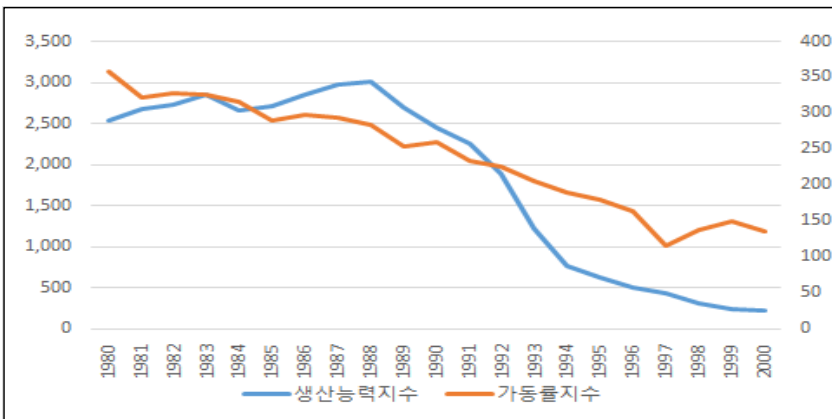
따라서 수출만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1988년까지는 한국의 신발산업의 성장이 진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수출 신발의 고급화, 플라자 합의 이후의 환율변동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신발산업이 이를 계기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얻은 것은 아니었다. 비록 수출액이 1990년까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출수량을 기준으로 하면 1988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후 다시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졌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현상은 생산능력지수나 가동률지수를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그림 2>는 2010년을 100으로 한 생산능력지수와 가동률지수를 보인 것이다. 생산능력은 1988년을 정점으로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고, 1991년 이후 더욱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즉 수출량의 추이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후반 이미 생산능력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었다. 가동률지수는 더욱 심각한데, 다소의 변동을 포함하고 있지만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림 2> 한국 신발산업의 생산능력지수와 가동률 지수

(단위 :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http://kosis.kr>)

주 : 1) 2010=100, 2) 생산능력지수는 좌측 종축, 가동률지수는 우측종축 기준임.

더욱이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1988~1991년 사이에도 생산능력의 대폭적인 증가가 따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이 이전의 시기에 생산능력이 포화상태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2010년이 100인 것에 비해 정점이었던 1988년의 생산능력지수가 무려 3,008

을 넘어서고 있다. 즉 30배 이상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이는 상식적인 선을 넘어서 급격한 것이고, 하락이라는 표현보다는 ‘붕괴’, 혹은 ‘해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실측치를 기준으로 하면, 1980년 한국의 신발산업의 전체 생산 라인 수는 530개 라인이었고, 1986년에는 737개 라인으로 증가하고 있다. 1988년부터 라인수의 감소가 진행되는데 1988년에는 716개 라인, 1990년에는 661개 라인, 1992년에는 437개 라인으로 감소하고 있다. 즉 생산라인의 수가 1986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미 정점에 이르고 있었고, 이후 이미 감소가 시작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하면 1980년에 329만 족이었던 것이 1988년에는 600만 족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후 1990년에는 530만 족으로 1992년에는 370만 족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⁵⁾

이러한 생산능력의 감소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수출의 부진에 따른 기업의 도산이다.⁶⁾ <그림 3>은 내수출하지수와 수출출하지수의 추이를 보인 것이다.

먼저 생산능력의 감소는 1988년을 정점으로 시작된 반면 수출출하지수는 1987년을 정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내수출하지수의 경우는 적어도 1992년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즉 신발산업의 전반적인 생산을 좌우한 것은 수출이었고, 수출의 애로가 신발산업 붕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⁷⁾

앞의 <표 1>의 지표와 비교해 보면, 1988년 이후 수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내수 비중의 증가로 나타났고, 적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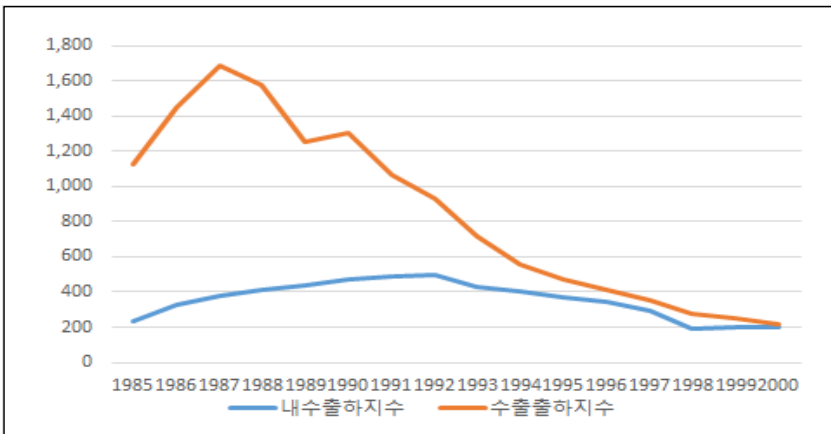
5) 이에 대해서는 <부표 4>. 참조

6) 뒤에 설명하겠지만 도산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응도 중요한 원인이다. 즉 경영규모의 축소와 재입지 전략이 중요한 원인이다.

7) 이러한 신발산업의 문제는 이미 그 성장과정에서 준비된 것이었다. 1960~70년대 성장과정에서 배태된 신발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지용, 『앞의 논문』, 2015를 참조할 수 있다.

1992년까지 내수출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신발산업 전체의 생산능력을 감당하기에는 한계를 가진 것이었다.

〈그림 3〉 한국 신발산업의 내수출하지수와 수출출하지수의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http://kosis.kr>)

주 : 1) 2010=100, 2) 생산능력지수는 좌측 종축, 가동률지수는 우측종축 기준임.

수출과 내수 모두에서 활로를 찾지 못한 신발산업의 생산능력의 감소는 현실적으로는 기업의 부도와 생산의 축소로 나타났다. 1986년 및 1987년 1/4분기 까지 부산지역 어음부도액의 3~6%를 차지하던 신발업체의 부도 규모가 1987년 2/4분기 들어 20% 내외로 급증하였다.⁸⁾ 1987년 1월부터 9월 사이에만 부산지역에서 도산한 신발업체가 40곳에 이르고 있었다. 이중 종업원 150명 이상의 기업이 16개사에 이르고 있었다.

이러한 신발업계의 부도는 1990년대에 들어 급격히 진행되었다. 성화는 1991년, 유봉화학, 세화상사, 삼화는 1992년에 도산하였고, 진양

8) 한국은행 부산지점, 『부산지역 신발제조업체 실태조사보고서』, 1987, 7~8쪽.

은 1992년 조업을 중단하였으며, 동일화성, 덕성실업, 태광고무, 금호상사, 아폴로제화산업, 동해케미컬 등도 1993년에 부도가 났다. 화승역시 나이키와 계약이 해지된 1993년 신발생산 공장을 폐업하였다.

이러한 신발산업의 수출채산성의 악화와 이에 따른 부도의 원인으로서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환율의 평가절상, 1987년 민주화투쟁 이후 급격한 임금의 인상,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이 지적된다. 1987년 부산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수출상품의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전체 응답기업의 53.85%의 기업이 원화정상을 들고 있다. 또 생산활동이 부진하다고 대답한 기업의 원재료 조달난, 노사분규로 인한 자금난을 들고 있다.⁹⁾

환율의 평가절상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급격한 것이었다. 임금상승의 경우, 1984~1987년 사이는 연평균 13%의 임금 상승률이 유지되었고, 이는 노동생산성의 증가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1987년을 기점으로 임금상승률을 구해보면 생산직의 경우 1981~1986년간 평균임금 상승률은 8.93%인 것에 비해 1987~1990년간의 평균임금상승률은 무려 23.1%에 이르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성형신발제조업의 경우는 무려 26.56%에 이르고 있다.(부표4 참조) 원자재 가격의 상승 역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다. 주된 수출품목인 혁제운동화 및 일반 혁화의 경우 피혁 원단이 전체 투입원자재의 75.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피혁 원단의 국내 자급률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1988년은 1986년에 비해 주요 원자재 가격이 30% 정도 인상되었다.¹⁰⁾

이러한 경제 환경의 변화는 기업경영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안정성관련 지표를 보면, 장지적인 안정성을 나타내는 자

9) 한국은행 부산지점, 『앞의 보고서』, 26쪽, 36쪽.

10) 1986~1988년간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화에 대한 것은 부표 7을 참조할 수 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였다. 원피의 경우 1987년 12월 61~62달러이었던 것이 1990년에는 77~79달러로 인상되었다. 면사의 경우는 같은 기간 283달러에서 500달러로 인상되었다. 임정덕·박재운, 『앞의 책』, 23쪽, 393쪽. 참조

기자본비율은 1989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문제는 1990년 제조업 전체의 자기자본 비율이 25.9%였던 것과 비교하면 자기자본비율이 너무 낮았다는 점이다.¹¹⁾ 1990년 유동비율은 제조업평균을 약간 하회하고 있고, 연도별로 기복이 커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부채비율은 1990년 1,089.8%로 제조업 전체의 3.7배에 이른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¹²⁾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보면 수익성이 1989년 이후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출액순이익률은 1988년을 기점으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어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총자본순이익률 역시 변동성이 심하다. 제조업 평균¹⁴⁾을 보면 1986~1987년 사이는 2.4~2.5%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후 하락의 경향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또 매출액대매출원가 비중을 보면 제업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채산성이 낮은 산업임을 알 수 있다.¹⁵⁾ 당시 한국은행의 분석은 수출신장세 둔화에 따른 판매부진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영업수지의 악화 및 차입금 규모의 증가 및 차입금 금리의 상승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됨으로 인한 영업외수지의 악화를 이유로 들고 있다.¹⁶⁾

성장성관련 지표를 보면 변동성이 아주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총자산증가율은 198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1989년에

11)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제조업 전체의 자기자본 비율은 각각 22.2%, 22.7%, 25.3%, 28.2%였다.

12)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제조업 전체의 부채비율은 각각 350.9%, 340.1%, 296.0%, 254.3%, 286.3%였다.

13)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제조업 전체의 매출액순이익률은 각각 2.0%, 1.9%, 2.0%, 1.6%, 1.4%였다.

14)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제조업 전체의 총자본순이익률은 각각 2.4%, 2.4%, 2.5%, 1.7%, 1.5%였다.

15)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제조업 전체의 매출원가대매출액 비중을 보면 각각 83.3%, 83.9%, 83.9%, 83.9%, 83.0%였다.

16) 한국은행 부산지점, 『앞의 책』, 1991, 22쪽.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후 다시 감소의 추세이다. 문제는 항상 제조업 평균¹⁷⁾보다 증가율이 낮았다는 점이다. 제조업 전체의 자기자본증가율은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신발산업의 변동성은 너무 크다. 이는 주로 수출 경기에 따라 변동성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매출액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89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표 2〉 1980년대 후반 신발산업 기업경영 주요 지표

(단위 (%))

구분		1986	1987	1988	1989	1990
안정성	자기자본비율	8.5	10.0	12.2	14.3	8.5
	부채비율	1080.7	902.6	720.3	597.1	1078.8
	유동비율	104.0	78.2	108.2	76.3	98.8
수익성	매출액순이익률	1.5	0.0	1.4	0.8	0.5
	총자본순이익률	2.7	0.1	2.8	1.4	0.7
	매출원가대매출액비율	87.2	88.3	88.8	88.7	88.4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12.7	11.8	3.5	22.9	21.5
	자기자본증가율	70.4	6.9	40.2	48	22.6
	매출액증가율	30.5	12.6	12.9	-7.5	32.7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부산지점, 『부산지역 신발산업의 현황』, 1987, 21~23쪽에서 작성)

즉 1980년대 후반 신발산업의 경영지표를 보면 안정성과 수익성이 모두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성장성은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역시 임금의 상승, 원화의 평가절상이었다.

그런데 원화의 절상과 임금의 상승은 산업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친 것이었다. 또 1985년 9월부터 1987년 말까지 우리나라 원화는 12.5%

17)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제조업 전체의 총자산증가율은 각각 15.2%, 20.4%, 15.8%, 24.0%, 23.7%였다.

평가절상 되었지만, 신발수출의 주요 경쟁국인 이탈리아 및 대만의 평가절상은 각각 54.3%와 41.8%로 우리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었다.¹⁸⁾ 특히 임금의 상승은 신발산업분야 보다 오히려 다른 부문에서 더 급격히 진행된 것이었다. 1987~1991년간 자동차산업의 생산직 임금 증가율은 27.93%, 철강부문은 28.91%였다. 사무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신발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임금상승률이 유의적으로 높지 않았고, 오히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¹⁹⁾

그렇다면 신발산업의 급격한 위축은 다른 원인이 있다는 의미가 된다. 즉 원자재, 임금, 원화의 평가절하는 모두 비용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제는 신발산업은 이러한 비용의 상승을 최종재 가격에 반영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이다. 이는 신발산업 성장과정에서 비롯된 문제이다.²⁰⁾

한국의 신발산업은 국제하청생산구조²¹⁾에 편입되면서 급성장하였다. 주로 주문자상표(OEM) 부착방식의 생산을 행하였으며,²²⁾ 한국의 신발수출은 몇몇 거대 신발자본의 수주에 의해 지탱되고 있었다. 1992년말 현재 수출의 95% 이상이 나이키(Nike), 리복(Reebok), 아디다스(Adidas), 엘에이거(LA gear) 등 미국이나 유럽의 유명브랜드에 의해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으로 제조되어 수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자체상표부착방식(OBM)의 수출비중은 1990년에 2.05%, 1991년에 3.75%, 1992년에도 4.97%에 불과하였다. 또 상위 4개 바이어가 한국전체 신발수출의 36.9%, 바이어 수주액 전체의 46.9%를 차지하고 있었다.

18) 노성호·이광민·김종문, 『신발산업 국내외 여건의 변화와 그 영향』, 산업연구원, 1988, 9쪽.

19) 이에 대해서는 임정덕·박재운, 『앞의 책』, 112~118쪽. 참조

20) 이러한 의미에서 신발산업의 위기는 이미 1970년대에 준비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장지용, 『앞의 논문』, 2015. 참조

21) 이에 대해서는 김용문, 『한국신발산업의 성격에 관한 일 고찰』,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60~62쪽.

22) 임정덕·박재운, 『앞의 책』, 328쪽.

1981년 바이어에 의한 신발수출이 전체 신발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5.4%에 이르고 있고, 1985년 이후에도 85% 이상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지역적으로 미국시장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수출이 시작된 초기에 미국시장의 비중이 90%를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미국시장의 비중이 다소 줄어들고 이를 대신하여 유럽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었지만 전체 수출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은 1989년에 64.2%, 1990년 60.2%에 이르고 있다.²³⁾

OEM 생산방식은 수출물량에 대한 계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산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신소재, 품질, 디자인 등의 독자적인 개발, 독자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한 발전을 저해한다. 결국 해외 거대 자본에 종속적인 생산구조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임금의 인상, 원자재가격의 상승, 환율의 평가절상 등의 비용증가를 외국 바이어에게 전가할 수 없었던 우리나라 기업은 고스란히 그 부담을 내부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한국산 신발류는 실제 수출가격의 3~5배 이상의 고가로 판매되고 있었지만 그 이득은 유명브랜드 사들의 몫이었다.²⁴⁾

또 국내에서는 1981년 미국의 비고무화류에 대한 수입규제(OMA) 종료에 따라 수많은 중소기업체가 신발산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는 수출을 둘러싼 국내업체간 경쟁을 가속화시켰다.²⁵⁾ 또한 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중국·베트남 등의 국가들에서 저임금을 바탕으로 저가의 신발생산과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1987~1990년 사이에 중국이 3,000여개 생산라인을 갖추게 되었고, 인도네시아 1,000여개 라인, 태국 및 말레이시아 등 인도차이나 쪽에도 1,000여개 라인의 생산

23) 한국신발협회, 『신발산업현황』, 1992. 1970년대 국가별 수출현황에 대해서는 장지용, 『앞의 논문』, 2015, 15~16쪽. 참조,

24) 김용문의 추계에 의하면, 1989년 신발산업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70억불 정도의 잉여가치가 해외로 이전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용문, 『앞의 논문』, 88~89쪽.

25) 그 결과 1982년 한 해 동안에만 20개의 공장이 폐업을 하였고, 60개 생산라인이 가동 중지 상태였다. 임정덕·박재운, 『앞의 책』, 21쪽.

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세계의 실제적인 신발생산 및 공급능력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따라서 수출을 주도하던 국내 대기업이 가격조건을 유리하게 형성할 수 없었다. 바로 이 때문에 기업의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었던 것이다.

도산을 피하기 위한 신발산업의 자구책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도산이라는 비자발적 퇴출이외에도 자발적 퇴출과 경영규모의 축소, 생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다각화, 다양화, 기술개발과 혁신, 그리고 독자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된 것은 물론이다.²⁶⁾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재입지 혹은 해외이전이였다.²⁷⁾ 이러한 해외이전에 인해 국내생산능력의 저하와 함께 수입의 급증이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표 3〉 신발산업의 해외진출 현황(1991.10 현재)

(단위: 개사, 개, 천달러)

구분	전체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미국	필리핀	기타
진출업체	30	14	5	2	2	1	5
비중	100	46.67	16.67	6.67	6.67	3.33	16.67
설치라인	121	67	31	6	2	5	9
비중	100	55.37	25.62	4.96	1.65	4.13	7.44

자료 : 한국신발산업협회.(임정덕·박재운, 『앞의 책』, 232쪽에서 재작성)

주 : 중국의 생산라인 수는 제화, 제봉, 완제라인의 합임.

신발업체의 해외이전은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1988년을 전후한 시기에 집중되어 있고, 1991년 말 현재 모두 30개 업체가 진출하였고, 인도네시아가 14개사 67개 라인을 이전하여 최대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이 되었다. 이전한 기업 중 부산업체는 21개사로 전체의 70%에 이

26) 정부도 1992년 신발산업을 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하고, 1994년까지 3개년 동안 2천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27) 재입지의 경우 특히 부산에서 기업의 역외이전 현상으로 나타났다.

르고 있다.

생산능력과 수출의 급격한 감소는 바로 기업의 도산과 함께 진행된 기업의 해외이전의 결과였다. 또 한국의 신발수입은 수출이 감소와는 대조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부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신발 수입이 198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87년에 불과 3,190 달러였던 수입액이 1996년도에는 474,091천 달러로 급증하고 있다. 1996년 수출액이 1,235,473천 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수출액의 38.37%에 달하는 수입이 진행된 것이다. 이는 한국의 신발산업이 내수 시장에서조차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보이지 못한 반증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기업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역수입이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Ⅲ. 부산 신발산업의 해체와 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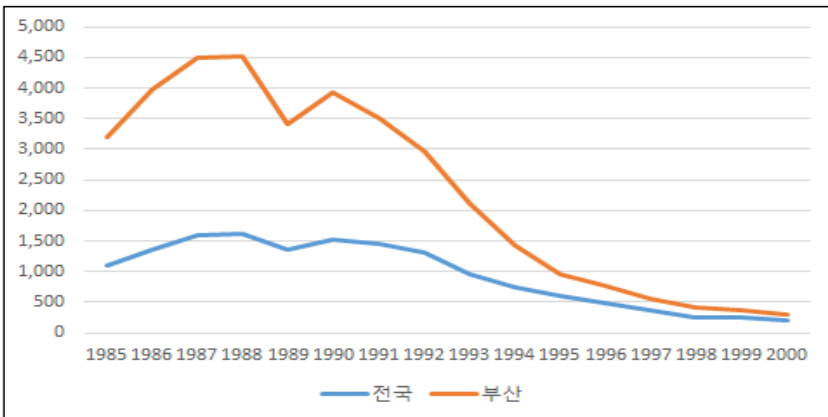
한국 신발산업의 대부분이 부산지역에 편중되어 있었고, 한국 신발산업의 성장과 붕괴는 부산신발산업의 성장과 붕괴로부터 시작되었다. 전국과 부산의 신발산업의 생산지수의 변화추이를 보면 무엇보다 분명하게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는 부산지역 신발산업의 생산지수 변화 추이를 보인 것이다. 2010년을 100으로 하였을 경우 부산의 경우 1988년의 생산지수가 무려 4,500을 넘고 있다. 2010년에 비해 45배 정도의 생산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전국은 1,600을 넘고 있다.

부산이 전국 신발의 대부분을 생산한 것임을 알 수 있음과 동시에 그 성장과 몰락도 부산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88년을 정점으로 부산의 생산지수는 급격하게 하락하는 반면, 전국의 생산지수는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다. 부산 신발산업의 성장과 붕괴가 앞에서 살펴본 한국 신발산업 성장과 붕괴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²⁸⁾

28) 1990년에 생산지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이유와 같다.

〈그림 4〉 부산 신발산업 생산지수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http://kosis.kr>)

주 : 1) 2010=100,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산 신발산업의 생산 위축은 수출의 부진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그림 5> 부산지역 신발수출액과 부산지역 제조업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보인 것이다. 부산지역 신발수출은 한국수출과 마찬가지로 경향을 보이고 있다,²⁹⁾ 다소의 변동을 포함하고 있지만 1988년에는 3,225,935천 달러까지 상승하였다. 1989년 수출액이 감소하였고, 이어 1990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3,524,523천 달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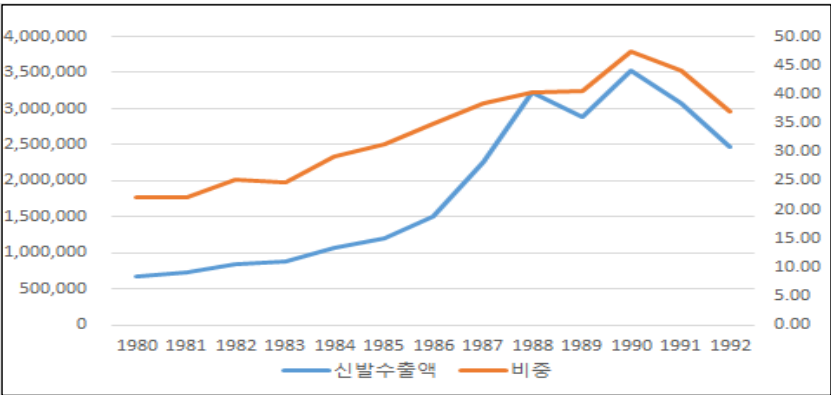
부산제조업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80년에는 22.12%였지만 1990년에는 44.17%에 이르고 있다. 부산지역 수출에서 신발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컸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이후

29) 자료의 추계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림 1>의 경향과 부산지역 신발제조업체의 변화경향은 일치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수출액의 감소에 따라 비중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부산지역 제조업 전체의 수출 감소 보다 신발산업의 위축이 더 극심하였던 결과이다. 부산지역 제조업 전체를 보면, 1988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여 8,002,741천 달러에 이르고 있었다.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그 감소는 비교적 완만한 것이었다. 1990년에 신발산업의 수출증대로 인하여 소폭 상승하였지만 감소의 1988년 이후 추세를 보이고 있고, 1992년 6,679,973천 달러에 이르고 있었다.

〈그림 5〉 부산지역 신발수출액과 비중의 추이

(단위: 천달러, %)



주 : 비중은 부산지역 전체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신발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임.

반면 부산지역 신발제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는 몇몇 부문을 제외하면 그다지 크지 않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산지역의 신발제조업이 전국 신발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자. <표 4>는 부산지역 신발 제조업체의 전국 신발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나타낸 것이다.(<부표 8>과 <부표 9>참조)

〈표 4〉 1981~1990 부산지역 신발산업 제조업체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1981	1984	1986	1987	1988	1989	1990
신 발 제 조 업	비고무화류	기업체수	-	28.33	23.33	21.71	20.11	14.66	15.77
		출하량	12.37	23.68	18.42	23.08	21.27	20.54	25.49
		출하액	19.57	28.80	22.57	25.85	21.31	18.34	15.31
	고무화류	기업체수	-	87.50	89.42	88.81	89.47	89.38	88.80
		출하량	87.52	88.41	90.01	92.38	89.47	88.26	16.09
		출하액	87.02	89.71	90.43	91.29	89.77	88.45	88.09
	플라스틱성형	기업체수	-	68.12	40.43	68.66	64.38	64.58	59.09
		출하량	91.61	79.25	80.63	-	41.83	33.92	42.15
		출하액	96.05	86.58	86.75	72.59	73.91	71.11	71.62
	계	기업체수	-	49.03	51.42	52.01	51.40	51.74	51.99
		출하량	76.26	77.00	78.44	81.28	76.66	74.49	16.6
		출하액	70.98	72.67	75.19	77.11	74.98	72.00	71.92
부 품 제 조 업	비고무화류	기업체수	-	51.00	37.82	40.16	34.13	24.79	20.16
		출하액	40.76	62.75	46.35	46.09	41.03	17.84	17.28
	고무화류	기업체수	-	79.49	88.72	84.41	88.60	90.21	90.45
		출하액	39.78	73.28	86.36	79.13	78.48	80.15	82.47
	플라스틱성형	기업체수	-	68.42	87.50	70.00	67.57	66.00	64.71
		출하액	18.99	52.64	85.63	74.01	75.38	71.51	76.13
	계	기업체수	-	63.96	66.04	69.68	69.05	71.89	71.56
		출하액	39.71	66.63	73.26	68.98	67.77	66.58	71.42

자료 : <부표 5, 6>과 동일.

먼저 완성품제조업체의 경우, 기업체수는 1980년대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1982년에 379개사에서 1990년에는 691개사로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신발 제조업체는 773개사에서 1,329개사로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산지역 신발제조업체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7년 52.01%을 정점으로 하고 있다. 1988년의 비중 감소 이후 다소 회복되긴 하였지만 1990년 51.99%이다. 신발산업체의 감소를 주도한 것은 비고무화류 신발제조업이었다.³⁰⁾

신발부분품 제조업에서는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비고

무화의 경우는 신발제조업에 비해 급격하게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 1984년 51.0%에서 1990년에는 20.16%로 까지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플라스틱 성형신발의 경우는 1987년을 정점으로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 반면 고무화의 경우는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여 1984년에 79.49%에서 1990년에는 90.45%까지 증가하고 있다. 운동화, 혁화가 포함된 신발부품산업의 제조업이 증가한 것이다. 그 결과 신발부분품 제조업의 전체 비중은 1989년까지 증가하고 있다.

출하액의 비중을 보면 신발제조업 전체로는 사업체수와 마찬가지로 198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역시 비고무화와 플라스틱성형 신발제조업의 비중 하락이 컸다. 신발부분품제조업은 그 비중이 1986년을 정점으로 하락하였다가 1990년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비고무화의 비중이 급속하게 감소한 반면 부품제조업 전체 비중의 감소는 완만하였고, 1990년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고무화의 비중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즉, 이 시기 부산은 1987년을 전후한 시점에 전반적인 비중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었다. 다만 전국 신발제조업의 생산지수의 하락이 1988년부터였던 것과 비교 하면 부산의 신발산업의 붕괴가 먼저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운동화가 포함된 부분은 여전히 그 비중의 큰 변화가 없었고, 부분품의 경우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부산의 신발산업이 운동화생산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전반적인 부진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산지역 신발산업의 성장과 위축이 곧 한국 신발산업의 성장과 위축이었기 때문이다.

신발산업이 부산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표가 종사자수이다. 신발산업 종사자수의 추이를 보면, 1989년에 171,998명을 정점으로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다. 경향적으로 보면 앞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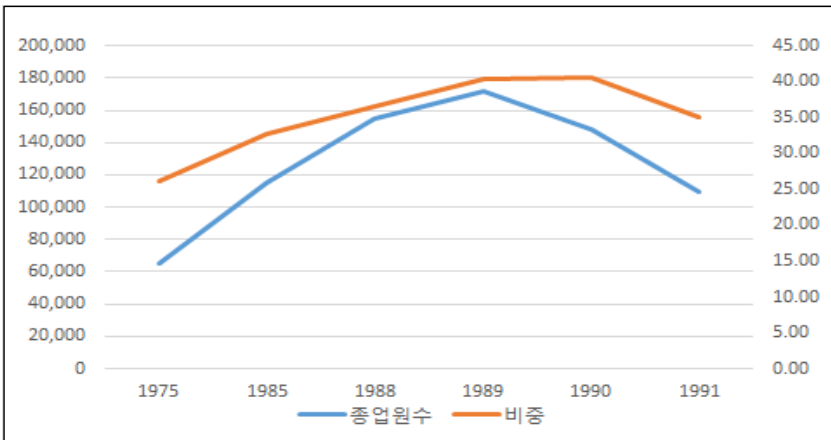
30) 플라스틱 신발제조업의 경우는 1986년에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였고, 이후 완만한 비중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서 살펴본 생산능력의 감소와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신발산업 종사자가 부산지역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보면 1990년의 40.67%를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신발산업 종사자가 부산지역 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40%를 넘고 있었다는 점이다. 부산에서 신발산업이 얼마나 큰 비중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비중의 감소가 더 늦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이 시기 부산지역은 신발산업뿐만 아니라 봉제를 중심으로 한 섬유산업의 붕괴가 같이 진행된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발, 봉제 합관으로 대표되던 부산의 산업이 이 시기 동시에 몰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림 7〉 부산지역 신발산업 종사자수의 추이

(단위: 천달러, %)



자료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지역 제조업체현황』, 각년도 ; 경제기획원, 『광공업 통계조사보고』, 각년도.

주 : 신발산업의 경우 고무관련 업종 포함.

생산능력의 감소는 현실적으로 기업의 부도로 나타났고, 종사자수의 감소는 실업으로 직결되었다. 1990년 신발업 전체의 부도액은 31

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1991년 부도액은 무려 247억 원이었고, 1991년 말 현재 3천만원 이상의 고액 부도업체만 43개사로 1990년의 8개사에 비해 437.5% 증가하였다.³¹⁾ 1990년 1월부터 10월 사이의 휴폐업 업체수는 모두 97개사였고, 1991년 동기에는 무려 170개 사였다.³²⁾ 이로 인한 실업자가 1990년에는 4,379명이었고, 1991년에는 무려 14,186명이었다.

1991년 12월 14일 현재 임금채불현황을 보면 신발산업은 모두 19개 업체에서 59억원의 임금이 채불되어 있었고,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노동자의 수가 6,742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부산지역 전체 임금채불업체(23개사)의 82.6%이고, 금액으로는 83.0%, 인원으로는 86.2%이다.³³⁾ 신발산업만이 아니라 섬유산업 등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현상이 나타났고, 이것이 부산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한 주요 원인이었다.

부산지역 신발산업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OEM 방식의 수출이 가진 문제점을 인식한 기업들이 독자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수출하기 시작한 것이 대표적인 대응의 방식이었다. 1993년까지 고유 브랜드로 수출을 시도한 기업은 15개 업체에 20개 브랜드였다. 코오롱의 액티브, 아그네스의 아그네스, 동양고무의 프로월드컵 등이 대표적이다.

(주)화승의 경우 1992년 전체 수출의 15.4%인 6,200만 달러를 자사

31) 한국은행 부산지점, 『앞의 책』, 1987, 31쪽.

32) 임정덕·박재운은 폐업 업체수를 1990년도에 51개사, 1991년도에 119개사, 1992년도에는 190여개사로 집계하고 있다. 또 부도규모도 1990년 31억원, 1991년 247억원, 1992년 513억 원으로 집계하고 있다. 또 동남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1991년 1월부터 9월 사이 신발업체 도산이 모두 463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완제품 생산업체가 12%, 신발임가공의 하청업체가 187개사, 신발재단물 및 부품업체가 220개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임정덕·박재운, 『앞의 책』, 337쪽 ; 동남은행, 『신발산업에 대한 연구보고』, 1991, 50쪽. 참조

33)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상공회의소 자료, 한국은행 부산지점, 『앞의 보고서』, 1987, 32쪽에서 재인용.

상표인 르까프로 수출하였는데 이는 1990년 보다는 물량으로는 5.2배, 비중은 6.7%가 늘어난 것이었다. 국제상사 역시 프로스펙스와 아티스의 2개 상표로 수출하기 시작하였고, 1992년 전체 수출의 59.4%인 4,800만 달러를 고유상표로 수출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는 이미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세계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이후였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은 시기를 놓친 것이었다.

신발산업의 기술혁신, 즉 자동화를 포함한 기술혁신은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함으로써 원가를 줄일 수 있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런데 신발산업은 공정의 특성상 자동화가 쉽지 않다. 부산지역에 대한 실사 조사³⁴⁾ 결과를 보면 1991년 현재 생산성을 감안한 자동화율은 6.9%, 시설자체로는 2.3%에 불과하였다.

당시 부산의 신발업체 보유 설비의 56.4%는 5~9년 사이의 설비였고, 10~14년이 30.2%, 15~20년의 설비도 7.5%에 달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었다. 또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2/3가 최근 2년 동안 기술도입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 자동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38%에 불과하였다. 이는 신발산업의 생산량의 증대가 설비의 도입, 자동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용의 증대에 의해 진행되어 왔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자동화 필요성의 인식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대응은 기업규모를 축소하는 감량경영을 하거나, 전문화하는 방법이다. 부산지역 신발산업을 규모별로 보면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부산지역 신발산업 종업원 규모별 사업체수의 변화 추이를 보인 것이다.

먼저 전체 기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앞선 고용의 추이와는 반대되는 모습이다. 즉 고용규모는 감소하였지만 기업체수는 늘어나고 있다. 이는 기업이 특화하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연화, 다

34) 부산지역의 신발업체 조사는 150 여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그 중 72개의 유효응답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이에 대해서는 임정덕·박재운, 『앞의 책』, 217~219쪽.

품종 소량생산, 전문화, 유연생산체계의 도입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중규모 이상의 업체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200인 이하의 기업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도산, 조업의 감축, 라인수의 감소에 따른 업체수의 감소가 재편되면서 소규모 기업으로 재편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2,000명이상의 업체수가 감소하다가 1991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5,000명 이상 기업이 축소조정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국제상사(주), (주)삼화 본사, (주)태화, (주)화승의 종업원 규모의 축소가 진행되었다. 1990년과 1991년을 비교해 보면 국제상사의 경우 12,787명에서 4,716명으로, 삼화 본사의 경우는 6,062명에서 4,000명으로 (주)태화의 경우는 9,300명에서 4,363명으로 감소하고 화승의 경우도 6,389명에서 3,850명으로 감소하고 있다.³⁵⁾

〈표 5〉 부산지역 신발산업 종업원 규모별 사업체수의 변화추이

(단위: 개사)

구분	1983	1984	1986	1988	1990	1991
계	210	313	471	687	732	791
10명 이하	8	13	39	39	35	75
11-20	16	21	54	64	70	106
21-50	43	93	128	230	350	314
51-100	42	69	95	144	75	147
101-200	31	38	57	98	98	63
201-300	19	17	24	24	30	33
301-500	14	24	23	27	25	20
501-1,000	18	14	23	30	23	14
1,001-2,000	9	14	19	19	15	8
2,000-5,000	4	4	3	6	5	10
5,000명 이상	6	6	6	6	6	1

35)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세원, (주)진양 등도 마찬가지이다. 3,0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었던 기업은 모두 13개 였는데 이들 모두 1988년을 기점으로 종업원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개별기업의 고용규모의 변화에 대해서는 임정덕·박재운, 『앞의 책』, 255쪽. 참조

자료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상공명람』, 1983~92.(임정덕·박재운, 『앞의 책』, 247쪽에서 인용)

주 : 신발산업은 직물, 포대, 침구 및 연승, 어망, 끈, 로프를 제외한 업체 현황임.

또 전문화에 승부를 걸고,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신흥의 기업들이 출현도 이 시기에 집중되었다. 앞선 시기에 등장한 안전화 전문의 영풍산업(1980년), 창신Inc(1981년)뿐만 아니라 신발산업이 붕괴하기 시작한 시기에 등장한 사이클화 전문의 우연(1988년), 배드민턴화 비트로의 학산(1988년), 등산화 트랙스타의 성호실업(1988년), 태권도화 전문생산의 보스산업(1994), 골프와 스케이트 보드화, 그리고 건강기능성 신발의 삼덕통상(1997년) 등이 대표적인 기업들이다.³⁶⁾

기업의 마지막 대응 전략은 재업지 및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다. 이는 토지비용이 저렴하고 노동공급이 유리한 곳으로 기업을 이전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려는 기업의 대응이다. 특히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김해와 양산 등으로 이전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였다. <표 6>를 보면 1988년부터 부산 지역 제조업의 역외이전이 급격하게 진행되었고, 이는 부산산업의 공동화라 할 만큼 급격한 것이었다. 특히 신발의 경우는 1989년부터 급격한 역외이전이 진행되었다. 1989~1990년 2년 동안의 역외이전 신발기업이 무려 44개사로 지난 15년간 역외 이전 신발기업의 42.72%에 달하고 있다.

역외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해외이전이다. 1978년 삼화고무가 필리핀에 직접투자를 행한 것을 시작으로 1987년에 태화고무, 1988년에는 8개 업체, 1990년과 1991년에 각각 3개 업체가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였다.

36)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김태현, 『부산기업사』, 부산발전연구원, 2004, 235~242쪽. 참조

〈표 6〉 신발업체의 연도별 역외 이전업체 추이

(단위: 개사, 명, %)

구분		1977-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77-1991	비중
전체 제조업	업체수	111	16	21	99	102	446	795	100.0
	종업원	28,298	998	908	3,923	3,025	40,180	77,332	100.0
신발 산업	업체수	32	7	6	24	20	14	103	13.0
	종업원	8,510	197	262	752	877	436	11,033	14.3

자료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지역 제조업체 현황』, 1983~1991.(임정덕·박재운, 『앞의 책』, 227쪽에서 인용)

〈표 7〉 신발산업의 업체별 해외투자 현황

(단위: 라인, 천달러, %)

국가	회사명	생산라인	투자액	투자년도	비고
인도네시아	(주)태화	8	800	1987.9	
	동일화성	1	기술투자	1988.2	1993.부도
	부영화학	6	기술투자	1988.6	
	태광실업	5	기술투자	1988.7	
	스타원	6	4,900	1988.11	
	동조무역	8	1,200	1989.1	
	(주)고려	5	3,500	1989.3	
	남성제화	8	1,500	1989.3	
	화승실업	4	895	1989.3	
	(주)보생	4	950	1989.6	
	(주)성화	9	1,786	1989.2	1993.부도
	국제상사	3	2,414	1989.1	
	우영산업	3	950	1989.	4
계		13(46.4)	70(66.0)	18,895(50.5)	
泰國	화승	4	3,096	1988.1	
	유진화학	2	588	1988.8	
스리랑카	두산산업	3	600	1980.10	
필리핀	(주)삼화	5	1,009	1978.11	1992.도산
방글라데시	동일화성	1	143	1989.5	1993.부도
계		5(17.9)	15(14.2)	5,426(14.5)	

국가	회사명	생산라인	투자액	투자년도	비고
칠레	통해화성	1	1,488	1988.1	
자메이카	부운물산	1	600	1988.4	
미국	대양고무	3	2,500	1989.12	1992.부도
	대도화성	1	1,000	1990.3	
도미니카	(주)대봉	2	1,000	1990.1	
계	5(17.9)	8(7.5)	6,588(17.5)		
중국	(주)태화	4	2,000	1990.8	
	성보산업	3	980	1991.2	1992.부도
	써니상사	1	960	1991.2	
	(주)선화	3	2,000	1991.2	
	한비산업	2	600	1989.8	
계	5(17.9)	13(12.3)	6,540(17.5)		
총계	28(100.0)	106(100.0)	37,449(100.0)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1991. 11월호(임정덕·박재운, 『앞의 책』, 233쪽에서 재인용)

초기의 투자는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동남아를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고, 1989년 이후는 중국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해외투자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낮은 임금(40%)이었고, 이외에 저렴한 생산요소 혹은 부품가격(20%), 적은 노사문제(13%), 값싼 토지(10%), 용이한 시장접근성(10%), 환율의 평가절상(5%)의 순이었다.³⁷⁾ 즉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선택한 것이 저임금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국제하청구조를 전제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 것이다. 즉 독자 브랜드화와 시장의 개척이 아니라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수출채산성을 맞추려는 노력이었다는 점이다.³⁸⁾

37) 임정덕·박재운, 『앞의 책』, 235~236쪽.

38) 1990년부터 진출국이 동남아에서 중국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동남아 지역의 투자여건과 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다음 투자국이 중국이었지만 중국에서 임금의 상승이 나타나면 또 다른 투자지역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대응은 장기적으로 한계를 가지는 것이다.

IV. 결론

1980년대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신발산업은 급격히 쇠퇴하였다. 산업적 기반이 해체될 정도의 쇠퇴는 그 성장과정에서 배태된 문제가 한꺼번에 현실화한 결과이다. 즉 신발산업은 저임금에 기반 한 산업이었고, 독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시장에 진출한 것이 아니라 국제하청체계에 기인한 성장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신발산업의 성장은 어떤 측면에선 비교우위에 입각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나아가 부산은 이러한 비교우위에 입각한 신발, 합판, 섬유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중화학공업화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기도 하다.

신발산업의 급격한 쇠퇴와 더불어 부산의 성장을 주도한 이러한 산업들의 동시적인 몰락은 부산경제를 침체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신발산업은 이러한 해체의 과정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지만, 그 역시 그다지 용이한 것은 아니었다.

특정 산업이 기술적 기초의 변화,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사양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사양 산업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고, 국제경제 환경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부산과 부산의 신발산업은 이러한 조정과 적응에 실패한 것이었다.

그러나 신발산업의 성장과정의 경험은 여전히 부산으로서는 중요한 자산이다. 특수한 분야에 전문화된 기업이 등장하면서 틈새시장을 확보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자산의 발현과정이다. 정부와 부산시가 부산의 신발산업을 높게 평가하고 여전히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성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산 신발산업이 이전과 같은 영광을 재현하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과거의 영광은 진정한 의미의 영광이 아니었다. 부산의 신발산업이 진정한 의미의 영광을 누리기 위한 출발은 1980년대 후반 신발산업의 붕괴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참고문헌】

- 김용문, 『한국신발산업의 성격에 관한 일 고찰』,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 김태현, 『부산기업사』, 부산발전연구원, 2004.
- 노성호·이광민·김종문, 『신발산업 국내외 여건의 변화와 그 영향』, 산업연구원, 1988.
- 동남은행, 『신발산업에 대한 연구보고』, 1991.
- 임정덕·박재운, 『한국의 신발산업』, 산업연구원, 1993.
- 장지용, 『1960·70년대 부산 신발산업의 성장과정 연구』, 『항도부산』, 31,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5.
- 한국신발협회, 『신발산업현황』, 1992.
- 한국은행 부산지점, 『부산지역 신발제조업체 실태조사보고서』, 1987.
- 한국은행 부산지점, 『부산지역신발산업의 현황』, 1991.
- 통계청홈페이지, <http://kosis.kr>.

투고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
2015.9.30	2015.11.5	2015.11.16

【Abstract】

A Study on the Growing Process of Footwear Industry in Busan the 1980-90s

Jang, Ji-yong*

This study analysis footwear Industry in Busan, particularly during dismantling period (1980s). Footwear Industry in Busan was rapidly declining in the 1980s, This decline is the result of a problem pregnancy in the growth process. Growth of the footwear industry based on low-paid work, and based on International subcontracting system.

Various efforts were carried out in response to the crisis in the footwear industry. Development of own brand and export, technological innovations including automated, specializes or miniaturized scale, Re-location and Overseas relocation of production base. But It is not so easy to find a new way out.

In the process of dissolution Companies specialized in special areas begin to find a niche market. but It may be difficult to replicate the glory like before. In the strict sense, past glory is not the true meaning of honor. New start in true sense of honor starts from the collapse of the shoe industry in the late 1980s .

* Key words : Busan, Footwear Industry, Export, Employee, Management Index Analysis

* Pusan National Universit

〈부표 1〉 우리나라 신발산업의 수출입 추이의 변화

(단위: 천달러, %)

구분	수출액계	신발	신발비중	수입액계	신발	
1977	10,046,457	487,627	4.85	10,810,538	46	0.00
1978	12,710,642	686,169	5.40	14,971,930	99	0.00
1979	15,055,453	728,912	4.84	20,338,611	744	0.00
1980	17,504,862	874,537	5.00	22,291,663	986	0.00
1981	21,253,757	1,024,099	4.82	26,131,421	387	0.00
1982	21,853,394	1,154,410	5.28	24,250,840	797	0.00
1983	24,445,054	1,234,826	5.05	26,192,221	1,167	0.00
1984	29,244,861	1,351,646	4.62	30,631,441	2,390	0.01
1985	30,283,122	1,534,310	5.07	31,135,655	2,125	0.01
1986	34,714,470	2,059,189	5.93	31,583,900	2,128	0.01
1987	47,280,927	2,755,871	5.83	41,019,812	3,190	0.01
1988	60,696,388	3,800,658	6.26	51,810,632	31,428	0.06
1989	62,377,174	3,587,462	5.75	61,464,772	43,054	0.07
1990	65,015,731	4,307,058	6.62	69,843,678	90,919	0.13
1991	71,870,122	3,835,944	5.34	81,524,858	92,402	0.11
1992	76,631,515	3,183,829	4.15	81,775,257	113,055	0.14
1993	82,235,866	2,309,139	2.81	83,800,142	152,703	0.18
1994	96,013,237	1,780,226	1.85	102,348,175	230,230	0.22
1995	125,057,988	1,505,889	1.20	135,118,933	351,720	0.26
1996	129,715,137	1,235,473	0.95	150,339,100	474,091	0.32
1997	136,164,204	981,656	0.72	144,616,374	437,502	0.30
1998	132,313,143	810,435	0.61	93,281,754	159,978	0.17
1999	143,685,459	798,941	0.56	119,752,282	192,864	0.16
2000	172,267,510	798,545	0.46	160,481,018	274,400	0.17
2001	150,439,144	701,812	0.47	141,097,821	310,881	0.22
2002	162,470,528	577,111	0.36	152,126,153	403,583	0.27
2003	193,817,443	509,172	0.26	178,826,657	515,677	0.29
2004	253,844,672	499,648	0.20	224,462,687	553,204	0.25
2005	284,418,743	482,114	0.17	261,238,264	670,947	0.26
2006	325,464,848	466,626	0.14	309,382,632	835,703	0.27
2007	371,489,086	462,637	0.12	356,845,733	958,648	0.27
2008	422,007,328	483,065	0.11	435,274,737	1,023,578	0.24
2009	363,533,561	375,107	0.10	323,084,521	923,139	0.29
2010	466,383,762	435,862	0.09	425,212,160	1,260,510	0.30
2011	555,213,656	463,472	0.08	524,413,090	1,672,112	0.32
2012	547,869,792	474,389	0.09	519,584,473	1,820,903	0.35
2013	559,632,434	522,805	0.09	515,585,515	2,029,765	0.39
2014	572,664,607	483,824	0.08	525,514,506	2,320,378	0.44

자료 : 한국무역협회, SITC에 의한 무역통계(<http://kosis.kr>)

주 : 1) 1991년 이전 자료는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통계통합품목분류(HS/K)체계로 연계되지 않은 자료임. 2) 수출의 계상시점은 통관면허일자 기준이고, FOB 가격 기준임. 3) 수입의 계상시점은 통관면허일자 기준이고, CIF 가격 기준임

〈부표 2〉 신발산업의 주요지수 변화추이

(단위: %)

구분	생산지수		생산자제품 출하지수		생산자제품 재고지수	
	전국	부산	전국	부산	전국	부산
1985	1,097.997	3,188.484	1,056.744	2,952.168	480.286	86.133
1986	1,365.188	3,969.383	1,291.977	3,672.010	617.544	106.817
1987	1,582.746	4,485.727	1,500.458	4,147.141	573.782	104.357
1988	1,623.173	4,520.335	1,537.527	4,217.818	722.267	131.064
1989	1,351.718	3,415.260	1,254.258	3,191.723	559.376	108.899
1990	1,516.769	3,931.137	1,406.195	3,581.412	563.705	111.485
1991	1,456.529	3,512.976	1,312.443	3,230.998	587.003	99.427
1992	1,318.012	2,961.726	1,200.583	2,737.290	480.091	68.782
1993	947.467	2,111.384	925.124	1,992.492	329.660	47.122
1994	741.916	1,430.564	725.260	1,379.860	224.939	23.135
1995	599.453	964.247	608.518	932.606	211.355	9.867
1996	475.004	774.262	511.779	738.912	218.739	13.527
1997	368.666	558.986	398.695	524.212	200.250	7.889
1998	256.376	419.022	279.372	386.986	101.539	17.448
1999	245.849	373.397	252.094	336.794	104.963	29.238
2000	210.723	306.855	223.405	292.286	101.943	51.358
2001	202.420	276.563	214.349	266.927	83.512	38.058
2002	178.061	230.784	190.016	225.000	89.017	29.144
2003	155.294	173.088	152.449	163.366	100.884	51.955
2004	138.480	162.641	137.844	154.384	92.059	58.478
2005	116.915	134.086	118.366	128.949	90.502	48.982
2006	124.973	133.270	128.960	131.936	97.161	49.481
2007	117.032	113.306	121.996	113.142	94.600	50.422
2008	117.548	124.478	118.949	118.601	107.321	114.032
2009	101.841	104.480	98.994	103.546	103.821	104.447
2010	100.0	100.0	100.0	100.0	152.2	180.2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http://kosis.kr>)

주 : 재고는 연말기준임.

〈부표 3〉 우리나라 신발산업의 생산능력

(단위: 개사, 개, 백만족, 천명)

구분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1	1992
업체수(A)	73	102	138	202	280	302	292	255
라인수(B)	530	650	653	737	716	661	548	437
B/A	7.3	6.4	4.7	3.6	2.6	2.2	1.9	1.7
종업원수(C)	92	122	115	142	155	135	115	92
C/A	1,260.3	1,196.1	833.3	702.9	553.6	447.0	393.8	360.8
C/B	173.6	187.7	176.1	192.7	216.5	204.2	209.9	210.5
생산능력	329	363	401	470	600	530	510	370
생산실적	298	349	376	467	573	512	460	366
가동률	90.6	96.1	93.8	99.4	95.5	96.6	90.2	98.9

자료 : 한국신발산업협회, 『신발산업현황』, 1992.(임정덕·박재운, 『앞의 책』, 145쪽에서 재인용)

주 : 신발관련 부품업체는 제외한 수치임.

〈부표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의 내수 및 수출 출하지수 추이

(2010=100) (단위: %)

구분	내수출하지수(원지수)			수출출하지수(원지수)		
	총지수	제조업	신발	총지수	제조업	신발
1985	21.103	21.577	234.266	5.736	5.725	1,123.903
1986	24.559	25.233	324.703	7.537	7.526	1,447.424
1987	28.585	29.484	379.402	9.430	9.417	1,685.210
1988	32.564	33.622	408.429	10.579	10.567	1,573.214
1989	36.389	37.694	439.873	9.458	9.444	1,255.666
1990	41.857	43.486	470.480	9.439	9.428	1,305.191
1991	46.446	48.270	490.115	10.043	10.031	1,070.814
1992	49.106	51.024	496.266	10.725	10.715	932.654
1993	51.815	53.647	428.485	11.430	11.425	714.564
1994	57.872	59.857	400.237	12.887	12.879	560.937
1995	63.656	65.784	367.219	15.414	15.410	468.323
1996	68.347	70.456	343.450	17.374	17.371	409.442
1997	69.283	71.144	290.409	20.610	20.607	350.244
1998	52.734	53.280	190.372	25.348	25.346	274.481
1999	63.986	65.047	203.139	33.042	33.040	250.503

구분	내수출하지수(원지수)			수출출하지수(원지수)		
	총지수	제조업	신발	총지수	제조업	신발
2000	72.400	73.628	201.558	39.928	39.926	219.477
2001	73.182	74.038	196.295	40.526	40.524	191.273
2002	78.603	79.580	183.983	43.966	43.965	181.121
2003	78.772	79.465	160.612	49.548	49.548	137.115
2004	80.488	81.011	138.501	59.507	59.506	124.692
2005	82.061	82.282	124.948	65.736	65.736	114.166
2006	87.129	87.576	131.518	72.342	72.342	113.738
2007	91.615	92.128	128.936	79.797	79.797	113.767
2008	91.143	91.367	122.782	85.478	85.478	110.950
2009	89.687	89.612	110.756	84.695	84.695	86.728
201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1	104.1	104.1	109.5	107.8	107.8	94.0
2012	103.6	103.4	103.8	112.3	112.3	104.7
2013	103.1	102.6	109.5	115.2	115.2	137.7
2014	103.2	102.9	94.9	114.7	114.7	154.1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http://kosis.kr>)

주 : 신발은 중분류 기준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을 말한다.

〈부표 5〉 우리나라 신발산업의 임금과 노동생산성의 변화추이

(단위: 원, %)

구분	임금			노동생산성	
	월 임금	증가율	지수	지수	증가율
1980	146,684	22.7	100.0	100.0	10.7
1981	176,176	20.1	120.1	118.1	18.1
1982	202,117	14.7	137.8	127.3	7.8
1983	226,790	12.2	154.6	144.6	13.6
1984	245,261	8.1	167.2	159.8	10.5
1985	269,652	9.9	183.8	171.1	7.2
1986	294,485	9.2	200.8	194.4	13.6
1987	328,696	11.6	224.12	17.4	11.8
1988	379,069	15.3	258.4	235.0	8.1

자료 : 노동부, 『매월 노동통계 조사보고서』, 1988.6.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 통계』, 1988.(김태선, 「부산지역 신발산업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5쪽에서 제작성)

〈부표 6〉 신발제조업 임금의 변화추이

(단위: 원, %)

구분		1981	1984	1986	1987	1988	1989	1990	1981-86 증가율	1987-90 증가율
생 산 직	평균	116,775	169,450	179,099	214,178	265,451	324,904	399,518	8.93	23.10
	3240	110,066	178,014	186,512	216,656	275,778	339,183	385,673	11.12	21.19
	35591	126,865	154,663	170,146	216,708	264,756	327,969	388,879	6.05	21.52
	35607	113,395	175,658	180,638	209,171	255,819	307,561	424,002	9.76	26.56
사 무 직	평균	264,452	295,225	299,667	357,784	382,217	455,199	512,666	2.53	12.74
	3240	201,988	287,480	297,557	377,783	383,849	495,799	522,673	8.06	11.43
	35591	345,843	358,997	362,665	401,124	430,906	500,749	515,650	0.95	8.73
	35607	245,526	259,199	298,780	294,444	331,897	369,048	499,678	4.00	19.28
증가율										
생 산 직	평균	-	45.11	5.69	19.59	23.94	22.40	22.96	10.16	23.10
	3240	-	61.73	4.77	16.16	27.29	22.99	13.71	13.30	21.33
	35591	-	21.91	10.01	27.37	22.17	23.88	18.57	6.38	21.54
	35607	-	54.91	2.84	15.80	22.30	20.23	37.86	11.55	26.80
사 무 직	평균	-	1.64	1.50	19.39	6.83	19.09	12.62	2.63	12.85
	3240	-	42.33	3.51	26.96	1.61	29.17	5.42	9.17	12.06
	35591	-	3.80	1.02	10.60	7.42	16.21	2.98	0.97	8.87
	35607	-	5.57	15.27	-1.45	12.72	11.19	35.40	4.17	19.77

자료 : 경제기획원,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임덕터·박재윤, 『앞의 책』 116쪽과 117쪽에서 제작성)

주 : 1) 증가율의 평균증가율은 단순계산 방식에 의해 구한 것이고, 위의 실측치에 표기된 연평균증가율은 CAGR방식으로 계산된 것임. 2) 3240은 신발제조업, 35591은 고무신제조업, 35607은 플라스틱성형신발제조업임.

〈부표 7〉 신발 원자재 가격의 변동 추이

구분	단위	1986년말 (A)	1987년 평균(B)	1988년 평균(C)	C/A (%)	C/B (%)
피혁	\$/SF	1.54	1.80	1.96	23.4	5.6
천연고무	\$/MT	860	1,040	1,208	40.5	16.2
합성고무(SBR)	\$/MT	835	908	1,160	38.9	27.8
EVA RESIN	\$/MT	810	925	1,408	73.8	52.2
면사	\$/곤	450	514	525	16.7	2.1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1989, 186쪽.

〈부표 8〉 부산지역 신발제조업의 기업체수, 출하량, 출하액의 변화 추이
(단위: 개사, 족, 백만원)

구분			1981	1984	1986	1987	1988	1989	1990
비고무 화류	기업체수 (개사)	전국		480	493	525	562	607	634
		부산		136	115	114	113	89	100
	출하량 (족)	전국	44,273,943	48,204,909	59,971,107	68,687,402	82,141,380	73,942,757	79,432,207
		부산	5,475,733	11,413,427	11,048,774	15,854,393	17,469,215	15,186,303	20,245,681
	출하액 (백만원)	전국	225,487	387,698	505,131	594,061	708,524	758,922	881,587
		부산	44,123	111,639	114,005	153,587	151,008	139,192	134,991
고무화 류	기업체수 (개사)	전국		224	378	402	437	565	607
		부산		196	338	357	391	505	539
	출하량 (족)	전국	191,416,000	220,705,152	308,937,000	360,233,000	377,619,000	328,731,000	1,940,285,000
		부산	167,524,000	195,134,152	278,086,000	332,786,000	337,854,000	290,138,000	312,188,000
	출하액 (백만원)	전국	516,888	965,097	1,731,804	2,152,476	2,571,125	2,477,069	3,089,009
		부산	449,800	865,835	1,566,153	1,965,052	2,308,159	2,190,871	2,720,986
플라스 틱성형	기업체수 (개사)	전국		69	47	67	73	96	88
		부산		47	19	46	47	62	52
	출하량 (족)	전국	43,879,896	22,782,000	9,960,000	-	8,283,000	13,256,000	11,282,000
		부산	40,200,212	18,055,000	8,031,000		3,465,000	4,497,000	4,755,000
	출하액 (백만원)	전국	131,868	40,184	16,036	19,815	22,990	25,640	43,266
		부산	126,658	34,791	13,912	14,383	16,991	18,233	30,986
계	기업체수 (개사)	전국	-	773	918	994	1,072	1,268	1,329
		부산	-	379	472	517	551	656	691
	출하량 (족)	전국	279,569,839	291,692,061	378,868,107	428,920,402	468,043,380	415,929,757	2,030,999,207
		부산	213,199,945	224,602,579	297,165,774	348,640,393	358,788,215	309,821,303	337,188,681
	출하액 (백만원)	전국	874,243	1,392,979	2,252,971	2,766,352	3,302,639	3,261,631	4,013,862
		부산	620,581	1,012,265	1,694,070	2,133,022	2,476,158	2,348,296	2,886,963

자료 : 경제기획원, 『광·공업통계조사보고』, 각년도.(임정덕·박재운, 『앞의 책』, 395~396쪽. 398쪽, 400쪽에서 재작성)

〈부표 9〉 부산지역 신발 부분품 제조업의 기업체수와 출하액의 변화 추이

(단위: 개사, 족, 백만원)

구분			1981	1984	1986	1987	1988	1989	1990
비고무 화류	기업체수	전국	-	100	119	127	126	121	124
		부산	-	51	45	51	43	30	25
	출하액 (백만원)	전국	36,895	55,398	89,475	104,654	126,471	100,463	97,962
		부산	15,039	34,763	41,475	48,234	51,896	17,920	16,930
고무화 류	기업체수	전국	-	78	133	186	228	327	356
		부산	-	62	118	157	202	295	322
	출하액 (백만원)	전국	16,157	52,812	176,260	229,636	304,555	355,438	465,681
		부산	6,428	38,701	152,222	181,707	239,024	284,883	384,047
플라스 틱성형	기업체수	전국	-	19	16	30	37	50	51
		부산	-	13	14	31	25	33	33
	출하액 (백만원)	전국	1,943	9,770	8,037	13,197	15,807	15,196	33,149
		부산	369	5,143	6,882	9,767	11,915	10,867	25,236
계	기업체수	전국	-	197	268	343	391	498	531
		부산	-	126	177	239	270	358	380
	출하액 (백만원)	전국	54,995	117,980	273,772	347,487	446,833	471,097	596,792
		부산	21,836	78,607	200,579	239,708	302,835	313,670	426,213

자료 : 경제기획원, 『광공업통계조사보고』, 각년도.(임정덕·박재운, 『앞의 책』, 397쪽, 399쪽, 401쪽에서 재작성)

〈부표 10〉 부산과 전국의 운동화제품 생산 신발업의 추이

(단위: 개사, 족, 백만원, %)

구분			1981	1984	1986	1987	1988	1989
운동화 제품	기업체수 (개사)	전국		58	80	190	181	210
		부산		52	73	177	165	189
	출하량 (족)	전국	161,682,000	87,795,000	97,931,000	339,525,000	362,232,000	314,315,000
		부산	142,134,000	71,097,000	78,546,000	312,128,000	324,763,000	277,319,000
	출하액 (백만원)	전국	437,655	324,802	364,392	1,835,393	2,205,487	2,069,170
		부산	395,165	279,190	291,150	1,696,032	2,020,234	1,861,767
비중	기업체수		-	89.66	91.25	93.16	91.16	90.00
	출하량		87.91	80.98	80.21	91.93	89.66	88.23
	출하액		90.29	85.96	79.90	92.41	91.60	89.98

자료 : 경제기획원, 『광공업통계조사보고』, 각년도.(임정덕·박재운, 『앞의 책』, 405쪽에서 제작성)

〈부표 11〉 우리나라 혁제운동화 수출 비중의 추이

(단위: 백만달러, %)

구분	1981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수출총액	1049	1398	1571	2109	2824	3801	3560	4307	3836	3184
혁명운동화	397.9	731	1029	1311	1564	2283	2199	2914	2568	1947
비중	37.93	52.29	65.50	62.16	55.38	60.06	61.77	67.66	66.94	61.15

자료 : 한국신발수출조합, 『한국신발수출통계』 각년도.(임정덕, 박재운, 『앞의 책』, 59쪽에 재인용)